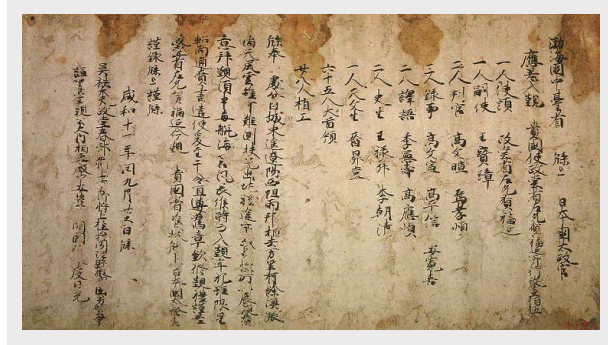


# 발해·일본 관계

## 상부상조에 담긴 동상이몽



발해 중대성에서 일본 태정관에게 보낸 문서(中臺省牒) 사본(복제품)  
/ 국립중앙박물관 /

### 1 개요

발해와 일본은 8세기 초에 교섭을 시작하였으며, 처음 교섭이 이루어진 배경은 양국 모두 신라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발해는 주변 국가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내세웠고,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외치던 일본 역시 고구려와 이를 이은 발해에 대해 일본의 번국(藩國)이라고 기록했다. 발해는 얼핏 보기엔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본의 뜻에 순응하는 듯 관계를 이어갔으나, 살펴보면 일본의 의도를 따라준 적 없이 자신들의 길을 가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익을 위해 움직였다. 양국은 외교적 마찰도 있었지만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 친밀하게 교류를 지속했다.

### 2 발해와 일본, 양국 교섭의 개시

발해와 일본이 공식적으로 처음 교섭한 것은 발해 건국(698년) 후 약 30년이 지난 727년(발해 무왕 10년, 일본 진기[神龜] 4년) 9월, 발해에서 일본으로 첫 번째 발해사(渤海使)가 파견되었을 때이다. [관련사료](#) 이와 관련하여 720년(발해 무왕 3년, 일본 요로[養老] 4년)에 일본이 말갈국(靺鞨國)으로 사자를 파견하여 시찰했던 기록을 주목하여, [관련사료](#) 발해와 일본의 비공식적인 첫 접촉은 이 시점이 아니었을까 추정하는 견해도 있긴 하다. 왜냐하면 말갈은 당시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동부 지역에 걸쳐 살던 종족으로, 발해 건국 당시 대부분 발해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말갈족이 곧 발해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762년 일본 동북 지방에 세워진 다가조비[多賀城碑]에 언급되는 '말갈국' 역시 그 증거로 보기도 하는데, 720년 기사와 다가조비의 말갈국이 발해를 뜻하는지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가 일본의 전신(前身)인 왜국(倭國)과 교류한 기록이 있고, 발해 지배층의 대다수는 고구려 유민이므로 발해가 이전부터 왜국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왜가 일본(日本)으로 국명을 바꾼 것이 670년 무렵으로 추정되므로, [관련사료](#) 720년 일본이 발해의 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는 말갈 지역을 탐방한 것을 계기로 발해 조정이 '일본'을 제대로 인식하고 교섭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한편, 발해와 일본은 지리적으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통로가 되는 동해는 당시까지도 항해가 쉽지 않은 바다였다. 양국을 오가는 길로는 크게 북회항로, 동해항로, 한반도 연안항로 등 세 항로가 있었다. 발해에서 출발할 때는 보통 북회항로를 이용하였는데, 두만강 하구인 용원부(龍原府) 동경(東京 : 지금의 혼춘현[琿春縣])에서 출발하여 북쪽 연안을 따라 홋카이도[北海道] 방향으로 가서 일본의 데와[出羽]나 에치고[越後]로 건너가는 루트였다. 반면에 일본에서 갈 때